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 제주 잠수어민을 중심으로 -

김수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잠수어업과 그 채취방법
- III. 제주 특산물 미역과 채곽잡녀
 - 1. 조선시대 제주어장의 특징
 - 2. 제주 특산물 미역과 미역세(稅藪)
 - 3. 채곽(採藪)잡녀
- IV. 제주포작의 신분적 지위
 - 1. 포작
 - 2. 포작의 실태
 - 3. 포작의 신분적 지위
- V. 맺음말

국문요약

조선시대 제주해산물은 향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시장성은 거의 없었지만 전복과 미역은 언제나 판교가 확보되어 있었다. 미역 때문에 제주에서는 흉년을 이길 수 있었고 현금수입원이 거의 없었던 제주관아에서는 미역을 팔아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미역은 아주 특별하였고 그 중요성 때문에 관에서는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4-AM0010).

** 김천대학교 교양학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여 그 원성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조선 초기 전국에서는 선상활동을 하며 해산물 진상을 담당하고 있는 포작(鮑作, 浦作)이 있었다. 이들은 각 지명에 따라서 전라포작, 충청포작, 경상포작, 제주포작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포작선을 타고 전복과 고기잡이를 하며 각종 진상 해산물을 봉진하는 어민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로 수탈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긴 전쟁과 언제 징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숨어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어민들의 활동양상은 임진왜란이후 크게 변화하여 지금과 같은 반농반어형태가 정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제주에서는 해산물 진상역을 담당하는 포작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중반 대정현 하모슬리호적중초와 일과리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신분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였다. 포작들은 1791년 이후 역이 훨씬 가벼워졌으며 19세기에 진입하면서 그 역에서 해방되었다.

주제어 : 잠수어업, 어민, 포작, 잠녀, 미역, 전복, 진상역, 공노비

I. 머리말

바다 속 암석 위에 살고 있는 전복, 홍합, 해삼과 같은 패류나 미역, 우뚝가사리등과 같은 해조류를 채취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손쉽게 채취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산물은 조선시대 수요층이 넓어 전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채취되고 있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는 잠수어업을 하였고 이 어업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짐작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복과 미역은 진상품으로 전국 각지에서 산출되어 진상되었지만 그 가운데 제주산전복과 미역은 으뜸이었다. 제주에서는 매년

12절기에 따라 많은 해산물과 감귤류, 말, 약재 등을 진상하였는데 그 역은 아주 무거웠다. 이 가운데 제주에서는 포작(鮑作)이라는 직역을 가진 자들이 해산물 진상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잠수어업은 제주에서 무거운 진상역을 지고 있었던 포작(鮑作)과 잠녀(潛女)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잠수어업에 주목하여 조선초기 남해안에서 잠수 및 어업활동을 하였던 어민들은 출륙한 제주포작으로 이해하였고 포작들은 많은 공물과 부역의 과중함, 수탈에 견딜 수 없어 출륙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인 잠녀가 진상역에 동원되면서 조선시대 잠녀의 어업 활동은 진상역과 결부되어 수탈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포작, 잠녀, 채곽녀(採藿女)의 어업적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이들의 활동을 상품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려고 한다.²⁾ 구체적으로 제주에서 잠수어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주의 환경적 요인에서 설명하고 그 잠수 방법을 육지 지역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역을 채

1)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호, 2004년.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 32호, 2008년.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 생활』, 『탐라문화』 19호, 1998년. 고창석, 『大靜旌義各浦收稅藿革罷節目』, 『제주의 역사문화와 고문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국고문서학회 공동학술회의, 2006년. 이 이외에도 대표적인 해녀연구는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0년. 김영돈, 『제주의 민속』 II, 제주도, 1994년. 藤永壯, 『1932年 濟州道海女のたたかい』, 『朝鮮民族運動史研究』 6, 1989년.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호, 2007년 10월. 등이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잠수어민을 잠녀라는 표현보다는 잠수어민으로 기술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잠녀라는 의미에는 진상역 담당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잠녀보다는 단순히 잠수어민으로 표현하겠다.

취하는 채취녀(採藿女)를 부각시키고 포작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세기 대정현 하모슬리호적중초와 일과리호적중초에 나타난 이들의 신분적 지위를 추적하였다. 이렇게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어업활동을 상품생산과 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선시대 제주어업사회를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조선시대 잠수어업과 그 채취방법

전복은 양반가에서 즐겨먹는 음식으로 양반들은 전복으로 김치를 만듦거나 포를 떠서 반찬으로 이용하였다. 조선후기 요리서에는 생전복을 저장하는 방법이 기록될 정도로 전복은 양반가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었다.³⁾

이렇게 전복은 해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상품이었고 그 소비도 양반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전복이 거래되고 있는 곳은 충청도의 충주, 홍주, 보령 영남의 경주, 울산, 김해, 영해, 청송, 동래, 순흥, 하동, 거제, 거창, 홍해, 양산, 영덕, 경산, 남해, 청하, 장서, 사천, 기장, 칠원, 호남의 순천, 영암, 강진, 홍양, 해남등지였다. 특히 충청도의 홍주, 보령, 영남의 울산, 동래, 청하, 기장, 전라의 영암에서는 생복(生鮑)이 판매되고 있었다.⁴⁾ 전복을 좋아하는 전복소비층이 있는 한 어민들은 전복을 채취할 수밖에 없다.

그 채취방법은 제주어민들처럼 잠수하면서 채취하는 방법과 함경도

3) 憑虛閣李氏, 『閩閩叢書』(정양완역, 보진재, 1975년, 68쪽)

4) 19세기 서유구 『林園經濟志』에 나오는 전복 생산지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전복 생산산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처럼 배 위에서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함경도에서는 어선에 어부 1~2명을 태워서 전복이 서식할 만한 곳에 먼저 기름을 떨어뜨려 수중을 투명하게 한 다음 착상 기구를 내려 전복을 꺼내 올렸다. 이 어업은 바닷물이 투명하지 않거나 전복이 너무 깊이 있거나 너무 작은 전복인 경우는 채취가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전복 채취는 잠수어업이었고 그것은 숙련 기술을 습득한 자만이 채취할 수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는 전복 채취를 ‘채복법(採鮑法)’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바닷가 단호(蠶戶)부녀자들이 전복을 채취하고 이것을 생업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단호는 잠수어업을 하는 어민으로 이 곳은 제주도라고 짐작된다. 그가 말하는 ‘채복법(採鮑法)’은 다음과 같다.

4. 50인이 무리를 지어 의상을 벗는데, 다만, 막대기를 발밑에 맨다. 뒤에 어 큰 박(제주 속칭 태왁)을 가지고 승냥을 그 밑에 달아매고, 다시 숙마로써 꼬은 줄, 길이는 수십 발되는 것으로서, 그 한쪽은 박을 매고, 다른 한쪽은 허리에 둘러 감는다. 허리 밑에는 또 작은 승냥 한 개를 차고, 오른손에는 자루가 달린 송곳을 잡는다.(자루의 길이는 1尺남짓으로 하고 그 송곳은 구부러 乙字모양의 목을 만드는데 목 아래로는 8,9寸이 되게 한다.)⁵⁾

해엄쳐 수중에 들어가면 바가지는 저절로 수면에 떠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 따라 내왕하다가 전복이 보이면 전복이 뜻하지 않는 틈을 타서 급히 송곳을 쑤서서 잡는다. 조금 더디게 하면 돌에 단단히 붙어버리니 떼어낼 수가 없다. 한 마리의 전복을 채취할 때마다 허리 밑의 소냥을 담고 6, 7마리가 되어 많아져 소냥이 무거워지면, 허리에 둘러 감은 굵은 줄을 꼭

5) 徐有榘, 『佃漁志』, 『林園十六志』, 1827년.(김명년역, 『전어지』,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년, 103쪽) 四五人 成群去衣裳 但着杖 木取大瓢懸繩囊于底 復以熟麻大繩 長數十把者 一端繫瓢 一端圍纏身腰 腰下又佩一小繩囊 右手持有柄錐 柄長尺餘 其錐句曲作乙頸以下八九寸

붙잡고 떠올라 수면으로 나와서 빨리 전복을 바가지 밑에 매달린 대낭에 옮기고 다시 헤엄쳐 물 속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10여회 계속하면 하루에 수 백 마리를 채취할 수가 있다.⁶⁾

‘채복법(採鮑法)’은 나무막대를 다리에 묶어 물의 중압을 이기고 태와 몸을 연결한 생명줄로 잠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잠수방법으로 서유구는 누군가에게서 듣고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해안의 부녀자들이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곳은 제주이고 그가 기술한 채복법은 제주잠수들과 전혀 다른 형태였다.

김춘택(金春澤)의 『북헌거사집(北軒居士集)』의 잠녀설(潛女說)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주잠수들의 어업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가슴에 박(태와)을 붙이고 끈으로 짠 주머니를 태와에 묶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전복껍질을 주머니에 채우고 손에는 쇠꼬챙이(빗창)를 잡고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마음 내키면 물 속에 잠깁니다. 물 밑에 이르러 한 손으로 바윗돌을 쓸어보면 전복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복이 돌에 붙어 있는 것은 단단해서 꺾테기로 엮드려 있어 딱 붙기 때문에 즉시 딸 수가 없게 되어버리므로 그 색깔이 검어서 돌과 혼동하게 됩니다. 바로 묶은 꺾테기를 올려다 놓아 그곳을 알 수 있게 하면 그 앞면이 빛을 받아 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⁷⁾

6) 徐有集, 『佃漁志』, 『林園十六志』, 1827년.(김명년역, 앞의 책, 104쪽) 泗入水中則瓢自浮在水面 隨人來王 見鮑 必乘期不意 急以錐剔 取之 稍緩則緊粘於石 不可脫也 每取一鮑 卽收盛腰下小囊 多至六七覺囊重 則攀纏腰大繩 涌身出水面 數鮑移貯于瓢底大囊 復泗入水 如是十餘度 一日可得數十百

7) 김춘택(金春澤), 『북헌거사집(北軒居士集)』(좌혜경, 『기록과 구전전승에 표출된 해녀인식』,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2006년에서 재인용)

태왁을 가슴에 붙이고 전복을 채취하는 제주잠수의 어업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잠수들은 벨트 역할로 허리에 전복 껍질을 두르고 빗창 하나만 가지고 잠수를 하다가 빠르게 밖으로 나와 태왁을 붙잡는 민첩성이 있었다. 따라서 서유구가 소개한 ‘채복법(採鰓法)’은 육지지역에서의 잠수방법으로 그 잠수 기술은 상당히 원시적이었다.

또한 서유구는 홍합과 해삼도 채복법(採鰓法)으로 잡는다고 하였다.

채담채법(採淡菜法)-7,8월사이에 어부들은 헤엄쳐 바닷 속 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 채취하는데 전복을 채취하는 방법과 같이 한다.⁸⁾

채해삼법(採海參法)-단호에서는 송곳을 가지고 헤엄쳐 물 속에 들어가 쭈서서 잡는데 홍합을 채취하는 방법과 같다.⁹⁾

위와 같이 육지지역에서도 잠수하여 전복과 해삼, 홍합과 같은 패류를 채취하여 전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전복 진상지에서는 전복 채취 기간이 되면 병영에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보름이상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복을 채취하였다.¹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복을 진상했으나 전복이 잘고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주산을 사서 상납했다는 사례¹¹⁾ 안면도에서처럼 전복 채취를 하지 못해 섬백성이 비속에게 곤장을 맞고 죽는 일들이 있었다.¹²⁾

8) 徐有榘, 『佃漁志』, 『林園十六志』, 1827년. (김명년역, 앞의 책, 104쪽) 七八月間漁者 泗入海中多石處 採取如採鰓法 蓋淡菜 喜粘石也 或云 淡菜喜生海藻上 採淡菜 必又海藻多處

9) 徐有榘, 『佃漁志』, 『林園十六志』, 1827년. (김명년역, 앞의 책, 104쪽) 海參 多在中巖石上 蟹戶 持錐泗入水 剔取之 如採淡菜法

10) 『정조실록』 정조 23년 5월 기묘조.

11) 『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무오조.

이렇게 육지어장에서든 수군이나 남자어민들이 전복을 채취하였다. 그 잠수기술은 제주보다 상당히 낮아 이 잠수방법은 제주잠수어업의 발달 과정에서 제주에서 전파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육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인가? 앞으로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주잠수어업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제주 특산물 미역과 채곽잠녀

1. 조선시대 제주어장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잠수어업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제주로 제주가 잠수어업의 발생지역이라고 일컫고 있으나 확실한 단서는 아직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 (A.D 504)에 ‘진주는 탐라에서 생산된다(玳則涉羅所產)’라 한 것을 보면 이미 5~6세기경에 제주에서 진주가 채취되고 있었고¹³⁾ 일본 사료에도 탐라복(耽羅鮞)이라는 명칭이 있어 고대부터 제주는 전복 생산지로 유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조선시대 제주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은 <표1>이다. 제주에서 어획되는 어류로는 옥돔[玉頭魚], 상어[鯊魚], 갈치[刀魚], 고등어[古刀魚], 멸치[行魚]¹⁵⁾, 望魚[철갑상어종류, 生魚¹⁶⁾]와 은어[銀口魚] 8종류와 해조류는 미역[藪]과 우뭇가사리[牛毛]를 포함한 2~

12) 『정조실록』 정조 23년 5월 병인조

13)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64년, 22쪽.

14) 網野善彦, 『日本社會再考』, 小學館, 1994년, 94~95쪽.

15) 어류학자 정문기는 제주에서 채록한 古老의 증언을 따라 멸치를 행어라고 하였다.

16) 品味雖佳而甚稀貴라고 하였는데 어떤 어류인지 알 수 없다.

3개, 패류로는 모시조개[黃蛤], 앵무조개[鸚鵡螺], 전복[鮑], 소라[螺]이다. 기타동식물로는 오징어[烏賊魚], 문어[文魚], 해달[海獺], 전복껍질[石決明], 거북등껍질[玳瑁]로 총 20종 내외이다. 이러한 어종들은 16세기~19세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표1〉 제주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출전	어 류	해조류	패 류	기타동식물	기타가공품	갑각류
(1)	玉頭魚	昆布, 藿, 牛毛		烏賊魚	石決明, 玳瑁, 蠟珠, 鹽	
(2)	銀口魚, 玉頭魚, 鯊魚, 刀魚, 古刀魚, 行魚	海衣, 藿, 牛毛	黃合, 貝, 鸚鵡螺, 鮑	文魚, 海獺	石決明, 玳瑁, 蠟珠, 鹽	蟹
(3)	銀口魚, 玉頭魚, 鯊魚, 刀魚, 古道魚, 行魚	海衣, 藿, 牛毛	黃合, 貝, 鸚鵡螺, 鮑	烏賊魚, 文魚, 海獺, 文魚, 烏賊魚	石決明, 玳瑁, 蠟, 無灰木, 鹽	蟹
(4)	銀口魚, 玉頭魚, 鮫魚, 刀魚, 古刀魚, 行魚, 望魚, 生魚	藿, 牛毛	黃合, 貝, 鸚鵡螺, 鮑	烏賊魚, 文魚, 海獺	玳瑁	
(5)	銀口魚, 玉頭魚, 鮫魚, 刀魚, 古刀魚, 行魚, 望魚, 生魚	藿, 牛毛	貝, 鸚鵡螺, 鮑, 黃合	烏賊魚, 文魚, 海獺	玳瑁, 蠟珠, 鹽	
(6)	(5)와 동일					

<출전> (1)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3)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1602년. (4)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誌)』 1653년. (5) 『제주읍지(濟州邑誌)』, 1785년. (6) 장연식(張演植), 『탐라지(耽羅誌)』 1848년.

조선시대 제주연안에서는 수심이 깊고 풍량이 심하여 어선어업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간만의 차가 거의 없어 어망을 부설하지 못하였다.¹⁷⁾

17) 이형상(李衡祥), 『남환박물(南宦博物)』, 海底皆石 且無潮汐之浦 漁場魚網俱無所施 只以所釣言之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山險海惡 不用網罟 魚則釣獸則射

제주어민들은 바닷물이 들고 나는 곳에 돌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원담 [石防簾]이나 잠수, 간단한 낚시로 물고기를 어획하였다.

무엇보다 제주에서 어선어업과 어망어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주가 육지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어획물이 제주어장에서만 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옥돔, 갈치, 고등어, 멸치, 상어는 난대성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들로 제주와 그 일부지역에서 어획되었기 때문에 그 판로는 아주 좁았다. 제주해산물 중 육지시장에서 많이 거래되었던 것은 미역과 전복으로 이 두 가지 해산물을 제외하면 제주어장의 시장성은 거의 없었다.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조차 바다어류보다는 은어장(銀魚匠)을 두어 하천어 은어를 별미식으로 먹었다.¹⁸⁾ 이들은 전복과 미역을 크게 선호하였고 큰 전복을 사기 위하여 아전들을 포구에 보낼 정도였다.¹⁹⁾

제주가 잠수어장이외의 어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개항 이후이며 일본인들은 도미류, 고등어, 갈치, 멸치, 전복, 우뚝가사리가 제주에 많다는 것을 알고 진출하였다. 개항 직후 제주에서는 일본인잠수기어민 진출로 잠수어민들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일본식어구가 도입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어업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²⁰⁾

18) 이건(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1628년(김태능역,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년, 198쪽. 無所產之魚族 而只有銀鉤口魚 自官家嚴禁私捉 擇定善漁者 名之曰銀魚匠 逐日捉之 盡納於官家 島中居民 未有知其味者

19) 『大靜縣衙中日記』 1817년 7월 11일조. 백미 8석을 보내어 2현의 현리로 하여금 대복을 사오게 하였음으로 각 포촌에 영을 내렸으나 사지 못함으로 장사군에게 전복을 샀다.

20) 김수희, 『개항기 제주멸치어장의 형성과 어업구조의 변화과정』, 『제주역사문화』 13 · 14호, 2005년 참조.

2. 제주 특산물 미역과 미역세(稅藪)

제주의 농경조건은 매우 열악하여 자급자족이 어려웠다. 농경지가 부족하였으므로 미역이나 말린 물고기를 팔아 쌀을 구입하였고 여러 가지 특산품을 교역하면서 생활하였다.

미역은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土民이 쌓아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 읍니다. 제주는 內地가 아니온데 생산되는 것이 가장 번창하다.²¹⁾

제주의 특산품은 말, 말총, 미역으로 조선전기까지 제주인들은 말을 팔아 생활하였다. 말을 사기 위하여 장사꾼들의 왕래가 많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유녀들도 있어 관기 가운데 넉넉한 자는 비단옷을 입을 정도로 말 교역이 활발하였다.²²⁾ 당시 말 가격은 좋은 말인 경우 면포 500필 정도로 노비 1구당 가격인 면포 150필의 3배에 달하였다. 게다가 제주의 말은 나주에 도착하면 이미 2배로 가격이 뛰고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또 배가 오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²³⁾ 그러나 조선정부는 전마 등의 확보 이유로 말 교역을 제재하고 금지하였다.²⁴⁾ 육지와와의 교역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었던 제주인들은 육지 해안 지역을 왕래하면서 해산물 채취로 생활하였으나 흉년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육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²⁵⁾

21) 『세종실록』 29년 9월 임자조.

22) 金尙憲, 『南槎錄』, 1601년.

23) 이욱, 「제주와 육지간 상품 유통」, 『조선후기 지역사회의 구조와 갈등 양상(II)』, 동아시아학술원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팀 학술회의, 2005년.

24) 『睿宗實錄』 卷3, 예종원년 2월 갑인(이욱, 앞 논문, 재인용)

25) 이욱, 앞 논문, 재인용.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

말 무역이 금지된 이후 제주 교역품은 미역이 되었다. 제주와의 교역 사례나 진상선의 조난사례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제주 교역품 가운데 미역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²⁶⁾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자연재해로 3년에 한번 정도 흉년들었는데 그 때마다 구황무역사(救荒貿易使)가 미역을 팔아 곡식을 구해왔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곡식을 옮겨 진출한 다음에 미역으로 거두어 다음 흉년에 대비할 나리포창을 만들었다. 나리포창의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전라감영에서 출자한 5,600냥을 밀천으로 마련한 3,000석을 제주도로 들여보내 거기에서 미역이나 양태를 사들여 이를 육지로 수송하여 팔아 미곡을 다시 사들이는 형태였다. 이때 제주에서는 미역으로 교환할 때에는 고정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미역 1속은 2전(米로는 1두), 양태 1립은 백미 1두 2승 5홉(전으로는 2전 5푼), 세양태 1립에 3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흉년마다 제주목사가 미역을 팔아 곡식을 구입하고 있었던 것을 국가가 민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구휼제도를 마련한 것이었다.²⁷⁾ 환곡분급대상자는 현물로 미역이나 양태로 거두었기 때문에 육지에서와 달

산업사, 1981년 참조.

26) 나가모리 미쯔노부,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호, 2003년. 표류자료 가운데 미역을 실은 진상선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1699년(숙종25년) 10월 29일 제주의 구황무역사 6명도 곡식을 구입하기 위한 본전으로 양태, 미역, 전복을 싣고 같이 탔다. <사례2> 1704년(숙종30년) 1월 4일 고마소(雇馬所) 및 예방소(禮房所)에 바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본전으로 미역, 군목(軍木), 전복, 木梳. 모자, 양대등을 싣고 있었다. <사례3> 고마소(雇馬所)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본전으로 미역, 전복을 싣고 출선하였다. 표류된 대부분의 진상선에는 모두 미역이 있었다.

은휼(恩恤) 『제주목지총람(濟州牧地誌總攬)』, 1723년 나리포 이전미 1,600여 석에 대한 보상 분의 양태와 미역을 실은 배가 침몰하였다. 1773년 이전미의 보상 분 미역 2,400푼이 또 침몰되었다.

27) 정형지,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이대사원』 28호, 1995.

리 토지 경작 유무와 상관없었다.²⁸⁾

조선후기 미역은 일반 식품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정부는 자휠헌칙(慈恤典則)을 발표하여 흉년에 구걸하는 어린이와 젓이 나오는 여자들에게 미역을 나누어 주었고 죽을 끓일 때에는 미역을 넣고 끓이도록 하는 등 구황식품으로 적극 이용하였다.²⁹⁾ 미역은 노약자나 허약자의 보양식, 산후음식 등 일반식이 되면서 제주의 미역 채취업은 더욱 발전하였다. 그러나 미역의 판로가 확대 될수록 제주 관에서는 더욱 그 수탈을 강화하였다.

제주에서는 세곽(稅藿) 또는 수세곽(收稅藿), 일용곽(日用藿), 관무곽(官貿藿) 등의 명칭으로 미역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세곽(稅藿)이란 언제부터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주에서는 일찍부터 수취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각 해안에 있는 채곽녀들에게 2束 5注之씩을 받아 공물선에 실어 보내어 관에서 쓸 물건을 바꾸어 왔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와 같은 형식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다.³⁰⁾ 관무곽(官貿藿)은 관에서 미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곽녀에게 먼저 팔[小米] 1두를 지급하여 미역 200호를 사드리는 방법이었다.³¹⁾

이러한 과정에서 아전들은 함부로 곱세의 근량을 정하고 마음대로 거

28) 『備邊司謄錄』 英祖32년 3월 19일, 本道每當歉歲 陸地移轉之粟 則勿論有土無土 通同分給

29) 『정조실록』 정조5년 6월, 정조는 자휠헌칙(慈恤典則)을 발표하여 흉년에 구걸하는 아이에게 10세에서 7세까지 하루 한사람에게 쌀 7홉 장2홉 미역 2입씩 주고 6세에서 4세까지는 하루 한 사람에게 쌀 5홉 장 1홉 미역 1입씩을 준다. 유랑하여 구걸하는 여인들 중에서 젓이 나오는 사람을 가리어 하루 쌀 1되 4홉, 장 3홉, 미역 잎 3입씩을 주도록 하였다.

30) 金仁澤(오문복역), 『大靜縣衙中日記』, 1817년 8월 8일. 세곽이라는 것은 아홉 곳의 포구 마을에 사는 잠녀들에게 이속오주씩을 받아 공물선에 실어 보내어 이로써 관청에 쓸 물건을 바꾸어 오는 것이다.

31) 권인혁·김동전, 앞의 논문, 187쪽.

두었다. 또한 수령들은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밑천으로 미역을 혈값에 사서 육지에 가서 팔아오게 하였고³²⁾ 관에서는 공을 빙자하여 마음대로 거두었다.³³⁾

포구의 유사(有司)는 관공이라고 칭하며 채취하는 대로 다 움켜쥐니, 포녀는 그 독한 주먹이 두려워서 감히 큰 소리 한마디 못하고 알몸으로 발을 구르며 여울 위에 섰다가 빈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니, 이 무슨 꼴인가. 더욱이 미역을 바칠 때는 색고배(色庫輩)가 저울추를 조작하므로 한 근을 바치면 거의 서너 근에 가깝고, 한 몫을 받으면 합하여 두세 몫에 이른다. 이리 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주패(朱牌)로 독촉하니 지아비는 형장의 형을 당하고 아내는 주장(朱杖)에 시달리어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지탱하기 어려운 폐막이 족히 화기를 헤칠만하다.³⁴⁾

그 폐단이 아주 심해지자 조선정부는 1791년 수세곽 1속의 무게를 17근으로 하고 무잡곽은 1속의 무게를 7근 반씩으로 하여 근량대로 징수하도록 하였다.³⁵⁾ 그러나 1814년 찰리어사 이재수의 별단에서도 ‘최근에 와서 세금을 징수할 때에 17근의 저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가봉(加捧)만을 일삼아 포녀(浦女)는 목놓아 소리내어 울며 청원한다’고 하였다.³⁶⁾

제정 기반이 미약한 제주에서는 미역수취가 절대적이었고 그 수취방법은 강제적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미역세

32) 李增, 『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초 8일.

33) 金尙憲, 『南槎錄』, 1601년.

34) 고창석, 『大靜旌義各浦收稅藹革罷節目』, 『제주의 역사문화와 고문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국고문서학회 공동학술회의, 2006년.

35) 고창석, 앞의 글, 재인용.

36) 『備邊司謄錄』 순조 14년 5월 24일.

의 근량을 정하고 세금도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으나 그 폐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1815년에 제주영 관내의 각 포에서 바치는 수세곽과 1840년에는 대정현과 정의현내의 수세곽이 모두 폐지하게 되었다.³⁷⁾

이렇게 조선시대 제주의 미역어업은 상품생산 활동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관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제주어민들의 상업적 활동은 개항 직후 한반도, 일본, 러시아등지로의 돈벌이 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그 진출의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³⁸⁾

3. 채곽(採藷)잠녀

제주에서는 잠수활동을 하는 여자를 잠녀(潛女), 포아(浦娥), 포여(浦女)라고 한다. 10세기전반 일본 헤이안(平安)시대 성립된 백과사전적 성격인 『왜명류취초(倭名類聚抄)』에는 잠녀(潛女)는 잠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³⁹⁾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잠녀기록은 1630년 이건(李健)이 남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였다. 여기에서 잠녀는 ‘미역을 따는 여자(採藷之女謂之潛女)’ 또한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生鰻之捉亦採取應官家所徵之役)’을 한다고 하였다.⁴⁰⁾

37) 고창석, 앞의 글, 48~51쪽.

38) 김수희, 앞의 논문, 『지역과 역사』 21호, 2007년 10월 참조.

39) 德島縣立博物館 『海人の見た世界』, 2006, 7쪽. 潛女-本朝式に云ふ伊勢の國等の潛女和名加豆岐米

40) 採藷之女 謂之潛女 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 入海採藷 其採藷之時則 所謂潛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鉞浮海 倒入海底 採藷曳出 男女相離 不以爲恥 所見加駭

이후 여러 기록에서 잠녀가 보이고 있는데 이익태(李益泰)의 『지영록(知瀛錄)』에서는 ‘진상 추인복을 잡는 채복잠녀(進上搥引鰻專責於採鰻潛女)’ ‘채곽잠녀 800명(採藿潛女多至八百)’이라 하여 잠녀를 진상전복 잠녀와 미역채취잠녀로 구분하였다.⁴¹⁾ 이형상(李衡祥)은 잠녀는 ‘1년 동안 진상 미역과 전복을 마련하여 바친다(潛女備納一年內進上藿鰻)’ 하였다.⁴²⁾ 따라서 17세기 기록으로 보여진 잠녀들은 미역과 전복을 채취하여 진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진상역이 있는 채복(採鰻)잠녀와 진상역이 없는 채곽(採藿)잠녀들이 있었다. 채곽잠녀는 해안에 800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기록에서 보면 잠녀라는 명칭이 사라져 잠녀를 포아(浦娥) 또는 포녀(浦女)라고 부르고 있었다. 1840년(헌종 6년) 『대정정의각포수세곽혁과절목(大靜旌義各浦收稅藿革罷節目)』에서 포아(浦娥)는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이고 포녀(浦女)는 ‘포아 중에서 가장 불쌍하여 박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자맥질하면서 헤엄을 친다’ 하여 포아와 포녀를 구분하였다.⁴³⁾ 장연식(張演植)의 『탐라지(耽羅志)』에서도 ‘포녀는 수세를 납부한다(浦女水稅之納)’고 하였다.⁴⁴⁾ 이러한 호칭의 다변화는 아직까지 자료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포아(浦娥)는 전복 잡는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나의 어린 잠수어민을 말하는 것이고 포녀(浦女)는 잠수기술을 몸에 익힌 숙련된 잠수어민으로 수세를 납부하는 어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生鰻之捉 亦如之(이건, 『제주풍토기』, 16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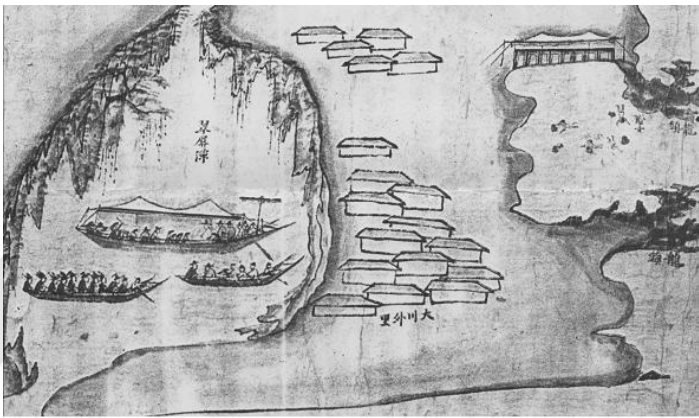
41) 김익수 역, 『지영록』, 제주문화원, 1997년, 85쪽.

42) 이정재, 『瓶窩年譜』, 청권사, 1979년, 250쪽.

43) 浦娥採藿, 而此中最可矜者浦女也 奇命一匏 裸身投海, 『대정정의각포수세곽혁과절목(大靜旌義各浦收稅藿革罷節目)』, 1840년.

44) 장연식(張演植), 『先生案』, 『탐라지(耽羅志)』, 1848년.

따라서 17세기 이후 각종 사료에 나타난 잠녀라는 호칭에는 진상역을 지니고 있는 어민, 19세기 자료에 나타난 포녀는 진상역이 없고 역에서 해방된 어민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어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조선후기 채곽잠녀들이 증가하는 시기의 제주사회상을 역사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용두암 잠수어민의 모습

IV. 제주포작의 신분적 지위

1. 포작

『조선왕조실록』 조선 초기 기록을 보면 고기잡이어민을 포작(鮑作, 浦作), 해척(海尺)이라고 기록하여 각 지명에 따라서 전라포작, 경상포작, 충청포작, 제주포작으로 부르고 있었다. 연해의 고을에서 봉진하는 해산물은 모두 이 포작들이 채취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이었다.⁴⁵⁾ 제주포작(浦作·鮑作)

은 수영하며 물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잠수어민으로 여자가 많다(永水採取之業 男少女多)고 하였다.⁴⁶⁾

이와 같이 포작들은 포작선을 타고 전복과 고기잡이를 하며 각종 진상 해산물을 봉진하는 어민들이었다.

포작이라는 해산물 채취 어민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성종기부터이다.⁴⁷⁾ 이 당시 화적(火賊), 산적(山賊), 우마적(牛馬賊)이라고 하는 도적떼가 발생하면서 수적(水賊)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성종 5년 성종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복 채취로 인한 변경의 문란을 염려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고 있었다.

이제 들건데 도내(道內)의 광양, 순천, 홍양, 낙안 등의 고을사람들이 세 인복(細引鰻), 원전복(圓全鰻)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다 가운데 먼 섬에 깊이 들어가서 큰 전복을 따다가 왜선과 만나서 서로 죽이고 노략질 한다고 하나, 장차변경에 문란이 날까 깊이 염려된다.⁴⁸⁾

이러한 문서를 내린 이유는 포작들이 상선을 겁탈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왜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고 하듯이 포작들 중에 수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제주에서는 과중한 부역과 수탈에 견디지 못해 많은 사람들

45) 『成宗實錄』 16년 4월 계해조.

46) 李元鑣, 『耽羅誌』, 工匠條, 1651년(鮑作 永水採取之業 男少女多)

47) 이령, 『왜구와 일려관계사』, 동경대학출판회, 1999년 참조. 성종기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적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 지주제와 상품유통의 발달로 수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48) 『성종실록』 권9 성종 5년 9월 계해조.

이 출륙하고 있었다. 제주인들은 사천, 고성, 진주등지에 와서 고기잡이와 해초따기를 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오로지 고기잡이로써 생계를 삼았음으로 수령들은 제주인을 포작한(鮑作干)이라 하며 모든 진상 해물을 이들에게 맡겼다.⁴⁹⁾ 이후 왜구침입이 잦아지면서 조선정부는 전국에 있는 포작과 포작선을 징발하여 왜구 퇴치를 하였다.⁵⁰⁾ 물론 제주에서 출륙한 제주인도 수군으로 편입되고 부족한 수군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수군은 가장 큰 고역이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⁵¹⁾ 따라서 육지에서 번을 서는 자들은 수군이 되면 포작들을 고용해서 대립시켰으나 금년에는 송아지를 팔아서 대고 이듬해에는 전택을 팔아서 내야할 정도로 역이 무거웠다. 포작들은 역을 피해 먼 도해로 도망쳤고 어떤 이는 왜구진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⁵²⁾

49) 『성종실록』 226 성종 20년 3월 계유조. 한우근, 앞의 논문 참조.

50) 연산 6년 7월 9일 포작선 14척에 나누어 타고 구을골이도에 가서 정박하도록 하고 섬을 수색하여 남녀 70명을 사로잡았다. 중종5년 4월13일 포작선을 조발하여 왜구와 싸우게 하였다.

51) 『중종실록』 33년 2월 11일(제주도는 인물이 떠돌아 날이 갈수록 공허하여 쇠환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허다한 여러 섬에서 왜적을 수색하거나 혹 대양에서 갑자기 적선을 만나 공격하는 일은水路에 익숙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水營에 소속된 포작한을 일체 역지로 쇠환한다면 모든 위급한 일이 생길 적에 배를 작동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비가 소홀하여지고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52) 『명종실록』 권20, 명종11년 5월 신미조.(연해의 포작간들이 변장의 침탈을 건디다 못해 왜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침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卷22, 宣祖28년, 6월 을묘조 (영남의 포작한들이 이익만을 탐해 처자를 거느리고 잇달아 적에 투항하니 그 정상을 따지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선조실록』 권24, 선조33년 1월 무신조.(전선은 포작한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 포작한들이 격군으로 동원된다는 영을 듣고는 온갖 계책을 다하여 이를 피하려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자를 배에다 싣고 먼 해도로 들어가는 자가 열이면 8~9명이나 됩니다.) 『선조실록』 권24, 선조 34년 4월 무오조.(수군은 평시에도 다른 군역보다 가장 괴로웠는데 난을 겪은 후로는 더욱 심합니다.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를 다루는 것을 전혀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布)를 마련하여 포작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립시키는데 그 포작하는 무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가고 없어 그

이러한 포작들은 남해안일대에서 선상활동을 하며 해산물 진상역을 지고 있었던 어민들이었다. 그러나 왜구 침입과 임진왜란으로 포작선이 전부 징발되고 포작들이 수군으로 이용되면서 포작수가 격감하였다. 징발이 되면 대부분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워 포작들은 도망가거나 숨어버렸다. 긴 전쟁과 언제 징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작들의 활동은 점차 축소되었고 육지에 숨어 전쟁이 끝나길 기다렸다. 전쟁 후 포작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지 않았다. 이후 제주 포작들도 출륙금지령으로 육지로 갈 수 없게 되자 해산물을 진상하는 역은 제주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포작의 실태

제주에서는 포작들이 진상용 해산물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정역호로 진상 추인복 및 관용물고기, 전복 등을 공납하였는데 포작이라는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진상하는 대표적인 해산물은 전복으로 전복을 추복(槌鮑), 조복(條鮑), 인복(引鮑), 회전복(灰全鮑)으로 가공하여 진상하였다. 그 진상 수량은 17세기 초반~17세기 중반이 가장 많았고 18세기 후반 해산물 진상수량과 비교하면 3배나 많았다.⁵³⁾ 이렇게 많은 해산물이 양감 되었던 이유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제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왕명에 따른 것이었지만⁵⁴⁾ 그 만큼 진상이 무겁고 그 역을 담당할

전에는 1백 호나 되던 마을이 지금은 1~2호밖에 남지 않아 값을 배나 요구하기 때 문에 당변한 수군이 금년에는 송아지를 팔아서 대고 이듬해에는 전택을 팔아서 내야 하니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고 맙니다.)

53)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 1996년. 17세기 중엽 추복 진상은 4,918첩, 인복은 1,115첩이었으나 18세기후반에는 추복 1,423첩, 인복은 354첩으로 3분의 1이하 감소하였다.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17세기 포작들의 모습을 기록한 사료를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가련했는지 알 수 있다.

제주에서 바쳐야할 전복의 수가 극히 많고 관리들이 공을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영위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된다. 포작배들이 그 역을 견디지 못하여 흩어져 떠돌다가 물에 빠져 죽어 열중에 두셋만 남게 되었는데도 필요하다고 거두어들이는 물건은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자신은 오래도록 물질을 하게 되고 처는 오래도록 감옥에 갇히게 되니 원한을 품고 괴로움을 견디는 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이웃에 과부가 있어도 오히려 거지노릇을 하다가 죽기를 바랄지언정 포작아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⁵⁵⁾

매 월령을 당하여 진상할 때면 혹은 잡아 가두어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 형틀의 채찍을 극도로 사용하지 않은 바가 아니었으나 또한 그래도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 또 고로의 말을 들으면 전에는 포작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죽히 진상역에 응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진상할 때 조금도 꺾임이 없었는데 경신년(1680년)이후로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 위에서 분담시키는 수가 비록 할인하여 준다 하더라도 실은 앞선 보다 더한 셈이니 조판할 형편이 만무하고 혹은 누차의 퇴환지환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⁵⁶⁾

54) 제주대학교박물관 편집, 『濟州牧地誌聰覽』 414쪽.(月令 進上搥引鰻烏賊魚藿蓂 諸并三分二永減.), 나가모리미쯔노부, 앞의 논문, 141쪽 참조.

55) 本州所責鰻魚之數極廣, 官吏之憑公營私, 又且倍籬, 浦作輩, 不堪其役, 流亡溺死, 十存二三, 而徵斂供應 不減於舊, 以此其身則長在海中, 其妻則長在獄中, 含冤耐苦之壯, 不下勝言, 故雖有隣居, 二婦, 寧願乙乞食自終, 不欲爲浦作人妻也. (金尙憲, 『南槎錄』)

56) 金聲久, 『南遷錄』.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상』, 『탐라문화』 32호, 2008년, 60쪽 재인용.)

1651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원진은 ‘포작 중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고 하였다.⁵⁷⁾ 1694년 목사 이익태는 ‘해산물 진상은 잠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 지운다’고 하였다.⁵⁸⁾ 이후 1701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섬 안의 풍속이 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음으로 다만 잠녀에게 맡긴다’고 하였다.⁵⁹⁾ 이를 증명하듯이 정의현감 이성구는 1680년 포작들이 거의 다 죽어 남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1651년~1694년 사이 포작들은 철저한 수탈의 대상이 되어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진상품을 봉인하고 조달하는 목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상품을 조달하였는데 이익태 목사는 채곽녀들을 훈련시켜 『잠녀록안(潛女錄案)』에 등록하였다.⁶⁰⁾ 이형상목사는 제주백성들의 민폐를 상소하면서 많은 진상품을 줄여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도 진상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1716년 숙종 42년에는 고기잡이에 익숙하고 근본이 있는 자와 관속 중에서 놀고 먹는 자를 별도로 뽑아서 포작에 충당시켰고 왕명에 의하여 이들의 자손을 문서에 올려 다른 역에 소속시키지 말도록 하였다.⁶¹⁾ 그런데도 포작의 수

57) 李元鎭, 『耽羅誌』.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년, 155쪽.)

58) 李益泰, 『增減十事』, 『知瀛錄』(김익수 역, 앞의 책, 87쪽)

59) 李衡祥, 『瓶窩全書』, 『濟州民瘼狀』(이정재역, 앞의 책, 250쪽.)

60) 李益泰, 『增減十事』, 『知瀛錄』, 1694년. 미역 캐는 잠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르는 데, 물 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채복녀(採鮑女)나 다름이 없다. 익숙하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투 피하려고만 한다. 이 잠녀들은 피로움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르다. 장래에 전복 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균역을 시키려고 하여, 전복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여 미역 잠녀에게 추·인복을 나누어 정하였다. 종전에 한 잠녀가 함께 힘을 합치면, 매달 매 사람에게 받는 게 한두 개 전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호소하며 어지럽게 일 년을 하고 나더니 편리하다고 하는 자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는 전복 잡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거의 효과를 보기에 이르렀는데 임기가 이미 임박하자, 간혹 말하기를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단단히 붙들고 전복잡이 백여 명에게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고는 추인복을 봉하여 진상하였다.

가 모자라자 그 대책으로 제주목사 황최언은 강시재(講試才)에서 1년 동안 포작역을 행한 사람에게 한하여 합격시켜 주는 것이 어떠한가를 상소하기도 하였다.⁶²⁾

17세기 후반 제주에서는 포작의 감소로 더 이상 진상 수량을 채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책으로 목사들은 어린이에서부터 60살이 넘은 노인까지 포작으로 충원시키거나 1년 동안 포작역을 한 사람에게는 시험에 합격시켜 역에서 면제시켜 주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정수를 채울 수 없었다.

3. 포작의 신분적 지위

여기에서는 18세기 대정현 하모슬리호적중초와 일과리호적중초를 활용하여 포작의 신분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하모슬리는 서귀포 차귀성과 함께 남쪽 해안경비의 중요한 요충지로 봉화와 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민호는 대부분 사수(射手), 격군(格軍), 성정군(城丁軍), 속오군(束伍軍)이었다. 1780년 『제주읍지』 기록을 보면 하모슬리에는 민호 118호(남302명, 여 366명)가 있었다.⁶³⁾ 1766년 하모슬리 호적중초에 기록된 민호는 15통 76호 471명으로 이 가운데 포작은 약 10호 37명, 전체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1771년 포작호는 7호(포작은 8명), 29명, 1780년 5호 21명, 1792년 8호 43명으로 호적중초에 기록된 포작호는 10~5호선에서 조율되고 있었다. 이러한 숫자는 대정현내에

61) 『備邊司謄錄』 숙종 42년 2월 2일.

62) 『備邊司謄錄』 영조 2년 5월 23일.

63) 『濟州邑誌』, 대정현, 1780년.

서의 하모슬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으며 대정현 해산물진상은 대부분 하모슬리 거주 포작들이 담당한 것으로 짐작된다.⁶⁴⁾

일과리는 하모슬리와 가깝고 인구도 하모슬리와 거의 비슷한 120호(남자 291명, 여자는 386명)이다.⁶⁵⁾ 1771년 일과리호적중초에는 포작이 없었으나 1774년 1호 4명, 1777년 5호 23명, 1780년 3호 14명, 1786년 이후 다시 포작이 보이지 않았다. 일과리의 특징은 하모슬리와 달리 포작이 적었고 5살, 13살 어린이에게도 포작역이 부과되고 있었다.

이들은 공노비로 내섬사(內贍寺), 인순부(仁順府), 사재감(司宰監), 봉상사(奉常寺)등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모슬리 포작들의 소속을 보면 인순부(5명), 내섬사(4명), 내자사(2명), 그 외 사재감, 예빈사, 봉상사, 사노였다. 일과리는 예빈사(3명), 그 외 사재감, 전의감, 사재감에 소속된 포작들이었다. 포작의 아내도 인순부, 내섬사, 봉상사등에 속해 있는 공노비로 포작처럼 중앙관청에 소속된 친인척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양인이었으나 부부 모두가 양인인 경우는 없었다. 하모슬리 경우 총 20명의 포작 중 양인은 1776년 4통 2반 김석금과 1792년 2통 1반 정영재 뿐이었고 이들의 어머니와 아내는 공노비, 또는 양인이었다. 하모슬리 포작의 나이는 13살~67살, 일과리는 5살~62살로 한 가정에 1~4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포작들은 하모슬리와 같은 군사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고 그 신분적 지위는 친인이었다. 이들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두고 있거나 결혼을 하지 못한 자는 어머니와 둘이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64) 대정현에는 포작이 13명이 있다.(『耽羅志』 貢獻條, 이원진저, 김찬흡외 7인 번역, 『역주 탐라지』, 2002년, 240쪽.)

65) 『濟州邑誌』, 대정현, 1780년.

〈표2〉 18후반 하모슬리 포작호

년	통-호	포작호			처(모)			주호관계	자녀	
		성명	나의	지역	성명	나의	지역		남	여
1766	4-2	김석금	56	포작성정	덕상	52	봉상시비	처	1	2
	4-4	강무산	47	사재감노포작성정	무진	68	사재감비	모	-	-
	6-2	김창석	60	인순부노포작	연상	56	사설시비	처	-	1
	7-4	이진세	33	내섬시노포작	강량	32	양녀	처	1	
	7-5	김부반	43	내섬시노포작	성매	23	내자시비	전처녀	-	-
	15-4	조성	41	인순부노포작	복금	28	인순부비	처	1	1
	15-5	고진창	18	인순부노포작성정	-	-	-	-	-	-
	16-5	이보성	58	봉상시노포작	복상	56	인순부비	처	1	3
	17-3	김시적	35	내섬시노포작	이관	32	내섬시비	처	2	1
	18-1	강성용	33	예빈시노포작성정	-	-	-	-	-	-
1771		김부반	49	내섬시노포작성정	성매	29	내자시비	전처녀	-	-
		김봉주	23	내자시노포작	인월	39	내자시비	모	-	-
		이세진	29	내섬시노포작	-	-	-	-	-	-
		이보성	64	봉상시노포작	복상	62	인순부비	처	1	3
		고진창	28	인순부노포작성정	초옥	50	인순부비	모	-	-
		고창완	18	인순부노포작성정	-	-	-	고진창弟	-	-
		김시적	41	내섬시노포작성정	이관	38	내섬시비	처	2	1
		조성	44	인순부노포작성정	복금	34	인순부비	처	1	2
1780	6-4	조성	61	인순부노포작성정	복금	43	인순부비	처	-	-
	7-1	김시적	60	내섬시노포작성정	이관	47	내섬시비	처	3	3
	7-2	고진창	33	인순부노포작성정	초옥	59	인순부비	모	-	-
	10-1	김부반	68	내섬시노포작	성매	38	내자시비	전처녀	-	-
	12-5	이진세	58	내섬시노포작성정	현소사	42	양인	차입	-	-
1792	2-1	정영재	37	양인포작	강예	69	양녀	모	-	-
	5-3	김광래	13	인순부노포작	차금	31	예빈시비	모	-	-
	7-5	김봉주	44	내자시노포작	차덕	35	봉상시비	처	1	1
	9-5	김영재	36	내섬시노포포작	춘덕	34	봉상시비	처	1	2
	11-3	김천만	15	시노포작	이덕	36	시비	모	-	-
	11-4	박인고	67	내자시노영포작	보벽	62	예빈시비	처	-	-
	14-5	조완	17	인순부노포작	복덕	55	시비	처	-	-
	17-5	김수정	26	시노포작	추매	37	시비	매	-	-

〈표3〉 18세기 후반 일과리 포작호

년	통-호	포작호			처(모)			주호관계	자녀	
		성명	나외	직역	성명	나외	직역		남	여
1774	8-2	문순홍	5	예빈시노포작	만덕	33	예빈시비	모	1	-
1777	5-4	김유창	57	예빈시노포작	순애	41	양녀	처	-	1
	13-5	문태성	13	사제감노포작	운매	44	사제감비	모	-	-
	14-4	이완귀	59	예빈시노포작성정	상금	43	내수사비	처	-	1
	17-2	홍문전	51	전의감노포작	-	-	-	-	-	-
	18-4	강성봉	57	내자시노포작	일금	47	내자시노	처	-	2
1780	5-4	김유창	60	예빈시노포작	순열	44	양녀	처	-	1
	13-5	이완귀	62	예빈시노포작	상금	46	내수사비	처	-	1
	18-5	강계봉	59	내섬시노포작	일금	50	내자사비	처	-	2

1766년 하모슬리호적중초를 살펴보면 두 가지 직역을 지고 있는 호가 총 11호 있었다. 포작성정(鮑作城丁) 4호, 그 외 격군성정(格軍城丁) 2호, 지장마대(紙匠馬隊) 또는 지장숙오(紙匠東伍) 3호, 장인숙오(匠人東伍) 1호, 서원마대(書員馬隊) 1호로 두 가지 역을 지고 있는 11호 중 4호가 포작호였다. 전체적으로 포작들은 포작과 성정군이라는 두 가지 역을 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예를 들면 1771년 포작 8명 중 5명, 1780년에는 포작 5명 중 4명이 두 가지 역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포작의 역이 가중되는 1771년 이후 포작들은 집단적으로 나외를 속여 역에서 빠지려고 하였다. 물론 60살 이상이라도 역이 부과되고 있었지만 1771년~1780년 사이 김부반 49살→68살, 김시적 41살→60살, 조성 44살→61살, 이진세 38살→58살로 나외를 속이고 있었다. 이후 이들은 호적에서 사라졌고 이 가운데 김시적의 아들은 아버지의 직역을 세습하여 내섬시노포작(內瞻寺奴鮑作)이 되었다.(1792년 9통 5호, 김영제) 또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포작에서 빠진 사례가 일과리에서도 있었다. 1777년 13통 5호 주호 문순보는 내수사노(內需寺奴)였으나

그의 아들 문태성(13살)이 사재감노포작(司宰監奴鮑作)이 되었다. 1780년 그의 아버지 문순보는 아들을 10살로 적게 기재하고 사재감노격군(司宰監奴格軍)으로 역을 바꾸고 있었다.

이와 같이 포작은 역이 많고 그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에 포작들은 나의를 속였고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1776년 사재감노포작성정 강무산, 예빈시노포작성정 강성용은 각각 47살, 33살이었다. 인순부노포작성정 고진창은 1780년 33살이 되었지만 결혼하지 못했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인순부노포작성정이었다. 한 가정에서 두 명이나 두 가지 역에 동원되고 있었다. ‘자식이 없는 사람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만 진상역에 동원되니 편중됨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⁶⁶⁾

한편, 포작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1792년 하모슬리호적중초에서는 포작이 한 가지 역만 지니고 있었고 이후 포작이라는 직역에서 해방되고 있었다. 일과리호적중초에서도 1786년 이후 포작이 보이지 않았고 1790년대 호적중초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하모슬리와 마찬가지로 18세기 말에 포작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포작들이 없어졌을까? 포작들이 진상했던 해산물은 누가 담당하게 되었을까?

1738년 정부는 포작들의 고역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역청을 설치하여 제번(除番)한 각색군관, 각양생들로부터 받아들인 평역미를 포작에게 지급토록 하였다.⁶⁷⁾ 그리고 1791년에는 대정현 포작이 내는 지장복(地

66) 『耽羅誌』 工匠條(이원진 저, 김찬흡외 번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년, 154쪽)

67) 『濟州邑誌』 제주목 균세조, 대정현 봉름조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 생활』, 『탐라문화』 19호, 1998년, 188쪽에서 재인용)

裝鰓), 마두복(馬頭鰓), 경주인역가복(京主人役價鰓)의 가격을 미가(米價)로 환산하여 평역미로 구입하도록 하였다.⁶⁸⁾ 이렇게 진상용 해산물을 어민들에게서 구입하라는 조치가 내려진 후 포작의 역은 가벼워졌고 이러한 관계로 포작들은 역에서 해방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1798년 하모슬리호적중초에서 확인해 보면 포작역에서 해방된 이들은 서원(書員), 노직통정대부(老職通政大夫), 진훈도(鎭訓導), 선한(船漢), 선평예리가 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직역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1792년 포작직역자 김영제, 조완, 김수정 3명이었다. 김영제는 1792년 내섬시노포작(內瞻寺奴鮑作)→1798년 내섬시노서원(內瞻寺奴書員)→1800년서원(書員)으로 변동하였다. 그의 아버지 김시적은 내섬시노포작속오(內瞻寺奴束伍)에서 노직통정대부(老職通政大夫)로 상승하였다. 조완은 1792년 인순부노포작(仁順府奴鮑作)→1798년 인순부노선한(仁順府奴船漢)→1800년 선평예리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으나 1807년 서원(書員)으로 직역 변화를 하면서 결혼도 하였고 2자녀를 두게 되었다. 김수정은 1792년 시노포작(寺奴鮑作)→1798년 내섬시노모슬진훈도(內瞻寺奴募瑟鎭訓導)→1800년 모슬진훈도(募瑟鎭訓導)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1791년 이후 포작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포작들은 그 역에서 벗어나 내섬시노서원, 인순부노선한, 내섬시노모슬포진훈도가 되었다. 1800년에는 서원, 선한, 훈도, 노직통정대부로 변화하였다. 1801년 공노비해방령이 내리기전 이미 제주의 포작층들은 자기신분을

68) 『大正縣釐正節目』(김나영, 앞 논문, 56쪽 재인용)

69) 이후 관아에서는 진상용 전복을 잡녀들에게서 구입하면서 이속(吏屬)들은 험값으로 사들이고 관무곽(官貿鰓)을 빌미로 과도한 정수를 하며 또 다른 수탈을 하기 시작하였다.(권인혁·김동전, 앞의 논문, 188쪽 참조.)

중인이나 양인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V. 맺음말

조선시대 잠수어업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제주산미역과 전복은 최고의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일찍부터 상품 생산 활동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제주어민들의 활동은 개항 직후 한 반도, 일본, 러시아등지로의 돈벌이 어업으로 연결되었고 진출의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확인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제주해산물은 향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시장성은 거의 없었지만 전복과 미역은 언제나 판로가 확보되어 있었다. 미역 때문에 제주에서는 흉년을 이길 수 있었고 현금수입원이 거의 없었던 제주관아에서는 미역을 팔아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미역은 아주 특별하였고 그 중요성 때문에 관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가련하였고 그들의 원성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제주에서는 잠수하는 여성을 잠녀(潛女), 포녀(浦女), 채곽녀(採藿女), 포아(浦娥)라고 하였다. 이러한 호칭의 다면화는 19세기 중반에 나타났는데 채곽녀는 포아와 같은 의미로 전복 잡는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나의 어린 잠수어민을 말하는 것이었고 포녀는 잠수기술을 몸에 익힌 숙련된 잠수어민으로 역에서 해방된 잠녀를 뜻하고 있었다. 진상 역이 사라지기 전까지 잠녀는 해산물 진상역과 관련하여 포작과 동일 시되고 있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의 잠수방법은 현재와 같은 방법이었지만 육지지역의 잠수들은 다리에 나무를 묶고 태와 몸통을 생명줄

로 연결한 다음 잠수를 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 전국에는 선상활동을 하며 해산물 진상을 담당하고 있는 포작(鮑作, 浦作)이 있었다. 이들은 각 지명에 따라서 전라포작, 충청포작, 경상포작, 제주포작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포작선을 타고 전복과 고기잡이를 하며 각종 진상 해산물을 봉진하는 어민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로 수탈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긴 전쟁과 언제 징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였고 숨어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어민들의 활동양상은 임진왜란이후 크게 변화하여 지금과 같은 반농반어형태가 정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제주에서는 해산물 진상역을 담당하는 포작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중반 대정현 하모슬리호적중초와 일과리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신분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였다. 포작은 5살이나 13살 어린이에서부터 70세 가까운 남자였으며 이 가운데 세력이 있는 자나 자식이 있는 자는 나의를 속여 역에서 빠지고 있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만이 포작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작들은 1791년 이후 역이 훨씬 가벼워졌으며 19세기에 진입하면서 그 진상역에서 해방되었다.

참고 문헌

1. 문헌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南宦博物』, 『大靜縣衙中日記』, 『濟州邑誌』, 『濟州風土記』, 『閩閩叢書』, 『林園十六志』, 『南槎錄』, 『濟州牧地誌總攬』, 『知瀛錄』, 『耽羅誌』(張寅植), 『大靜旌義各浦收稅藿革罷節目』, 『耽羅誌』(李元鎮), 『耽羅巡歷圖』, 『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 『大靜縣日課里戶籍中草』

2. 연구논저

1) 단행본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0년.
김영돈, 『제주의 민속』 II, 제주도, 1994년.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64년.
網野善彦, 『日本社會再考』, 小學館, 1994년.
徳島縣立博物館, 『海人の見た世界』, 2006년.

2) 논문 및 기타

한영국, 『「도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년.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호, 2004년.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 1996년.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 생활』, 『탐라문화』 19호, 1998년.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상』, 『탐라문화』 16호, 1996년.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 32호, 2008년.
정형지,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이대사원』 28호, 1995.
가모리미쯔노부,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호, 2003년.
고창석, 『大靜旌義各浦收稅藿革罷節目』, 『제주의 역사문화와 고문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국고문서학회 공동학술회의, 2006년.

이 옥, 「제주와 육지간 상품 유통」, 『조선후기 지역사회의 구조와 갈등 양상(Ⅱ)』, 동아시아학술원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팀 학술회의, 2005년.

藤永壯, 「1932年 濟州道海女のたたかい」, 『朝鮮民族運動史研究』 6, 1989년.

김동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년.

안미정, 『제주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년.

이성임, 「19세기 제주대정현 읍치 거주민의 혼인양상」, 『대동문화연구』 57, 2007.

김경란, 「일제시대 민적부의 작성과 여성주호의 성격」, 『대동문화연구』 57, 2007.

김수희, 「개항기 제주멸치어장의 형성과 어업구조의 변화과정」, 『제주역사문화』 13·14호, 2005년.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호, 2007년 10월.



Abstract

The Work and Status of Diving Fishermen during the Joseon Era
- Focusing on the Diving Fishermen on Jeju Island -

Kim, Soo-Hee*

Dive-fishing during the Joseon era was done not only in Jeju Island but also across the whole country. The brown seaweed and sea-ears from Jeju Island were the most popular products and were then developed into commercialized products. These commercial activities by Jeju fishermen were continued in Korea, Japan and Russia, and are believed to have been the major factors that allowed them to enter the markets outside Jeju.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ummarize the confirmed results of this study.

While fishery products from Jeju in Jeoson era were mostly rich in local color and had little market value, the brown seaweed and sea-ears were in high demand. Brown seaweed helped the people of Jeju to overcome years of famine. For the Jeju government, which had few sources for making cash, brown seaweed was a good source for cash because it could be sold to purchase necessities. The high value of seaweed caused the Jeju government to exploit the people of Jeju under various pretexts. The lives of the seaweed farmers were wretched, and complaints from the people have been confirmed in reports from various sources.

At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people called PoJak(s) all over the country who took care of the fish products that

*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ere sent to the king. They were named after their geographic location and were called Jeonla-Pojak, Chungcheong-Pojak, Gyeongsang-Pojak, and Jeju-Pojak. The Pojak ships caught fish and sent them to the king. Until the end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952 they were exploited and scattered. The fishermen did not do the fishery work and hid their social status to avoid requisitions which would be made at any time during the long war. There were many changes to the types of fishery in the Joseon era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952. The 'Half-farming-half-fishing' style has long since taken the place of the pure fisherman.

However in Jeju Island there used to be Pojaks who did fishery work and took care of sending the fishery products to the king, and information on these fishermen could be found in Hamosli Family and Ilgwalí- family registration in middle of the 18th Century. The Pojaks were public slaves who belonged to the Central government. Pojaks were men ranging from 13 to 70 years old. The responsibilities could be avoided if they lied about their age, if they were people of influence, and if they had children. It was discovered that people without children or dependants were forced to be Pojaks. Starting from 1791 the Pojaks were alleviated of much of their responsibility and were eventually freed. Upon entering the 19th Century the Pojaks in Jeju Island were freed from the national responsibilities.

Key Words

diving fishery, Pojak, diving women, sea-ear, and sending products to the king

교신 : 김수희 740-758 경북 김천시 신읍동 1278번지
우방아파트 1차 101동 403호
(E-mail : suheel225@yahoo.co.kr 전화 : 019-532-5477)

최초 투고일 2008. 7. 24

최종 접수일 2008. 8. 18